

# 갯세븐 “비주얼 · 군무 공 들여, 멋진 무대 보여줄 것”



갯세븐(GOT7)이 20일 오후 6시 새 앨범 ‘다이(DYE)’와 타이틀곡 ‘낫 바이 더 문’ (NOT BY THE MOON)을 발표하고 컴백했다.

갯세븐은 매 활동마다 이채로운 콘셉트와 음악으로 전 세계 팬심을 뜨겁게 달구며 ‘글로벌 대세돌’로 우뚝 섰다. 국내 외에서 맹활약을 펼치며 K팝을 이끄는 GOT7이 역대급 음반 ‘다이’의 발매를 기념해 직접 앨범 이야기를 전한다.

### - 이번 앨범에 대해 설명해 주다.

▶(JB) 앨범의 구성이 너무 좋다고 생각한다. 특히 타이틀곡 ‘낫 바이 더 문’은 애절함이 묻어 나와서 더욱 좋다. 트랙리스트나 로맨틱한 가사 등 전체적인 앨범의 흐름이 마음에 들고, 스토리가 담긴 음반이라 의미가 깊다.

▶(유겸) 한 편의 고전 소설을 보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하실 것 같다. 사랑의 감정을 다각도에서 바라보면서 들을 수 있는 곡들이 담겨 있거든요. 전곡을 다 들어 보시면 진짜 소설을 읽은 것 같은 느낌을 받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 ‘낫 바이 더 문’에 대해 자세히 이야기 해달라.

▶(JB) 음악적 색은 다르지만 분위기를 놓고 보자면 ‘내가 부르는 나의 이름’의 연장선이다. 하지만 이보다 조금 더 파워풀하고 애절한 느낌이 담긴 곡이다. ‘변하지 않는 마음의 맹세’를 표현했는데, 음악부터 의상까지 모든 콘셉트가 잘 어우러진 것 같아서 기쁘다.

▶(마크) ‘나의 사랑은 영원하다. 너를 지키겠다. 달처럼 매일 바뀌지 않을 거다’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

▶(유겸) ‘계속해서 변하는 달, 우리의 사랑을 계속 변하는 저 달에게 맹세하지 말자’라는 내용이고, 강하면서도 그루브 있는 사운드를 느낄 수 있다.

### - 타이틀곡을 처음 들었을 때 무슨 생각이 들었나.

▶(JB) 처음에는 ‘이 곡을 어떻게 표현해야 하지?’라는 생각을 했다. 그런데 녹음하고 음원을 들어보니 비로소 안도감이 들더라. 멤버들이 자기만의 방식으로 곡 해석을 잘 한 것 같고, 또 그게 잘 어울

### 새 앨범 ‘다이(DYE)’ 발표...K팝 글로벌 대세돌 우뚝

### “타이틀곡, 이번에도 새로운 모습 보일 수 있을 것 같아”

려서 좋은 결과물이 나왔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준비를 하면 할수록 설렘이 커졌던 것 같다.

▶(마크) 가이드 음원을 처음 들었을 땐 가사가 영어로 되어 있었다. 그래서 느낌이 색달랐고, ‘제대로 준비하면 정말 멋진 곡이 나오겠다’고 생각했다.

▶(잭슨) 우리가 해오던 느낌의 음악이 아니라 신선하다는 생각이 컸고, 그래서 더 신나고 좋았다. ‘이번에도 멋진 퍼포먼스를 보여드릴 수 있겠구나’ 생각했다.

▶(진영) 사실 가이드 음원을 듣고는 확 다가오는 느낌이 없었다. 그런데 저희 목소리가 담긴 결과물을 들어보니까 ‘이 노래가 타이틀이 된 이유가 확실히 있구나’ 싶었다. 각자의 매력을 잘 보여주는 곡이라 생각한다.

▶(뱀뱀) 굉장히 여러가지 생각이 들었다. ‘이 곡에 어떤 콘셉트가 잘 어울릴까’, ‘과연 우리가 잘 소화할 수 있을까’ 여러 고민이 많았다. 그런데 노래를 듣고 나서 머릿속에 계속 멜로디가 맴돌더라고요. 그래서 특별한 곡이라는 확신이 들었다.

▶(유겸) 수정 작업을 정말 많이 거쳐 완성한 결과물이다. 우리가 그동안 다양한 스타일을 선보였는데, ‘이번에도 새로운 모습 보여드릴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고,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느낌의 곡이어서 들으면 들을 수록 더 좋았다.

### - ‘낫 바이 더 문’ 가사가 굉장히 로맨틱하다. 특별히 좋아하는 구절이 있다면.

▶(JB) 달을 매일 변하는 매개체로 바라본 관점이 신선했다. 사실 처음 가사를 들었을 때 그 색다른 표현법에 놀랐고 나도 모르게 박수를 쳤다.

▶(마크) ‘아무 색 없던 매일, 너로 물들 내일, 이대로 난 Dye with you’ 이 부분이 제일 마음에 든다. 내 파트라서 애

### - 신곡을 준비하며 가장 중점을 둔 부분은.

▶(JB) 비주얼 변신을 꼭 알아봐 주셨으면 한다. 장발도 해보고 고전적인 느낌이 나는 의상에도 도전했고, 신경을 많이 썼다.

▶(잭슨) 내가 왕자다. 뮤직비디오에서.(웃음)

▶(진영) 춤에서 느껴지는 그루브를 꼭 봐주시기를 바란다. 전작과는 다른 느낌의 퍼포먼스다.

▶(유겸) 멤버들이 정말 많이 성숙해졌다는 생각을 했다. 노래, 안무 모두 전에 해보지 않은 새로운 스타일이라 이것 또한 도전이라 생각했다. 그래서 더욱 멋진 무대를 보여드리고 싶다.

### - 이번 안무를 전작들과 비교한다면.

▶(JB) 이번 노래는 후렴에서 그루브가 강하게 느껴진다. 그러다 보니 ‘내가 부르는 나의 이름’과 마찬가지로 이그루브를 살리는 게 어려웠다. 전작의 안무에 동작이 많았던 이번에는 동작을 좀 줄이고 느낌을 살려서 표현하는 부분이 많다.

▶(마크) 이번 안무야말로 ‘칼군무로

맞춰야 더 멋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서 연습할 때 각도나 느낌을 통일하는 데 제일 신경을 썼다.

### - 이번 비주얼 콘셉트를 가장 잘 소화한 멤버와 그 이유는.

▶(JB) 나 자신이라고 생각한다.(웃음) 지금의 긴 머리카락이 곡의 느낌을 바로 올려준 것 같다. 내가 춤을 격렬하게 추는 편이라 무대에서는 머리카락이 많이 휘날려 그 느낌을 잘 포착하기 어려울 수도 있지만, 사진에서는 좋은 결과를 낸 것 같다. 하지만 무대 위에서의 모습은 조금 걱정된다.

▶(진영) 유겸이랑 뱀뱀 둘은 화보를 찍을 때나 할 법한 개성 강한 메이크업을 잘 소화한다고 생각하는데, 이번 글리터 메이크업도 너무 잘 어울린다.

▶(영재) 마크! 마크 형은 어떤 노래든 어떤 콘셉트든 늘 옳다.

### - 뮤직비디오에서 가장 신경 쓴 부분이 있다면.

▶(JB) 비주얼과 분위기를 신경 썼다. 늘 보여드리는 JB라는 캐릭터를 이번엔 어떻게 더 새롭고 멋있게 보여줄 수 있을 까 하는 고민을 많이 했다.

▶(마크) 군무. 언제나 안무가 돋보일 수 있게 신경을 쓰는 편이다. 그래서 이번 뮤직비디오에도 군무를 집중해서 봐주시면 좋겠다.

▶(잭슨) 스토리다. 처음부터 끝까지 의미 있는 스토리가 연결되기 때문에 유심히 봐주셨으면 한다.

▶(진영) 나도 군무에 신경을 많이 썼다. 사실 기존에 해보지 않은 느낌의 안무라 뮤직비디오 촬영 날까지도 너무 어려웠다. 그래서 촬영 중간중간 연습을 계속 하면서 정말 공을 많이 들였던 것 같다.

▶(영재) 모든 면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어서 군무, 비주얼, 분위기 어느 하나 빼놓지 않고 다 살리려고 노력했다.



## 업텐션→엑스원→솔로 김우석 “달릴 준비가 됐다”

그들 업텐션, 엑스원 출신 김우석의 ‘랜선 남친’ 화보가 공개됐다.

20일 공개된 패션매거진 싱글즈의 김우석 화보는 ‘집에서 노는 김우석의 하루’라는 콘셉트로 진행됐다. 이번 화보에서 김우석은 남자친구가 없으면 하는 ‘남친룩’을 완벽하게 소화해내며 자랑하고 싶은 화보를 완성했다.

최근 MBC 예능 ‘복면가왕’에서 불타는 금요일로 3라운드까지 오르며 숨겨둔 실력을 발휘한 김우석은 “가면 쓴 예고편 3초만 보고도 팬들이 눈치를 챘더라. 어쩔 땐 나보다 나를 더 많이 아시는 것 같아 깜짝 놀랄 때가 있다. 이렇게 큰 사랑을 받는 만큼 열심히 해야겠다고 다짐하게 된다”며 출연 소감을 전했다.

인기 웹드라마 ‘에이틴’ 제작진의 신작으로 방영 전부터 기대를 모으고 있는 ‘트웬티트웬티’ (Twenty-Twenty)에 캐스팅, 연기 활동을 예고한 김우석은 “연기는 처음이니까 기분이 남다르다. 잘 할 수 있을지 걱정도 있지만 도전이 있어야 앞으로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의 도전을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다. 좋은 모습을 보여 드리고 싶다”며 포부를 전했다.

첫 솔로 팬클럽 모집도 앞두고 있는 김

우석은 “아직 실감이 나질 않는다. 현실처럼 느껴지지 않아 아직도 꿈만 같다. 팬클럽을 모집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조차 못 해봤다. 너무 감격스러운 일인 만큼 팬덤명 후보도 정말 고심했다. 팬클럽을 나를 상징하는 집약체라 하나하나 공들여 갖춰 나가고 싶다”며 애정을 드러냈다.

직접 곡 작업에 참여하며 상반기 솔로 앨범 발매를 앞둔 김우석은 “이번 앨범에는 저마다 색이 다른 곡들로 채울 예정이다. 아이돌 분위기, 어쿠스틱 등 다채로운 곡들을 들려드리고 싶다. 곡을 작업하는 사람이라면, 자기가 만든 것에 자신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다”며 솔로 앨범에 대한 자신감을 비쳤다.

“이제는 달릴 준비가 되었다”고 포문을 연 김우석은 “앞으로 걷다가 뒷걸음 친 적도 있고, 넘어진 적도 있고, 제자리에서 준비한 한 시간도 있었다. 이런 과정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는 달릴 준비가 되었다”고 본다. 가볍게 뛰기 시작한 요즘 정말 재미 있다. 그때그때 방향은 달라질 수 있겠지만 음악 하는 김우석은 변함 없을 거다. 팬분들께서 뿌려 주신 씨앗에 물을 주고 잘 키워내는 건 내 몫이다”며 본격적인 활동을 예고했다.

## 로꼬 · 스테파니리 양측 “이미 헤어진 사이” 열애설로 알려진 ‘결별’

### “최근 결별...좋은 동료 사이로”

래퍼 로꼬(31·본명 권혁우)와 모델 스테파니 리(27·본명 이정아)가 최근 결별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0일 소속사 AOMG 측 관계자는 이날 제기된 로꼬의 열애설과 관련 뉴스에 “최근 결별했다”며 “좋은 동료 사이로 남기로 했다”고 말했다.

스테파니리 소속사 YNK컴퍼니 관계자도 “확인해보니 이미 결별한 사이”라며 “좋은 동료로 남기로 했다”고 했다.

앞서 이날 오전 한 매체는 로꼬와 스테파니 리가 1년째 열애 중이라고 보도했다. 그러나 열애설과 동시에 결별 사실이 알려지며, 많은 이들을 더욱 큰 관심을 이끌어 냈다.

한편 로꼬는 지난 2012년 엠넷 ‘쇼미더머니 시즌1’에서 우승하며 유명해졌고, 같은 해 9월 싱글 ‘시 더 라이트’ (See The Light)를 발매하며 정식 데뷔했다. 이후 ‘감아’, ‘니가 모르게’, ‘어썸’



(AWESOME) 등의 곡을 발표하며 인기를 끌었다. 현재 의무경찰로 군복무 중이다. 스테파니 리는 모델로 데뷔했으며 지난 2014년부터는 배우로 전향해 활동 중이다.

그는 드라마 ‘선암여고 탐정단’, ‘용팔이’, ‘끝에서 두 번째 사랑’, ‘황후의 품격’ 과 영화 ‘신의 한 수: 귀수편’ 등에 출연했다.

## 넷플릭스行 ‘사냥의 시간’ 23일 공개...당일 스페셜 GV 개최

영화 ‘사냥의 시간’ (감독 윤성현)이 23일 넷플릭스(Netflix)를 통해 공개된다.

20일 넷플릭스 측은 “‘사냥의 시간’이 오는 23일 오후 4시, 전 세계 190여 개국에 동시 공개를 확정 짓고 같은 날 오후 9시부터 윤성현 감독과 이제훈, 안재홍, 최우식, 박정민, 박해수 그리고 이동진 평론가와 함께하는 스페셜 온라인 GV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사냥의 시간’은 새로운 인생을 위해 위

협한 작전을 계획한 네 친구들과 이를 뒤쫓는 정체불명의 추격자, 이들의 숨 막히는 사냥의 시간을 담아낸 추격 스릴러다.

이동진 평론가와 함께하는 이번 스페셜 온라인 GV는 이제훈, 안재홍, 최우식, 박정민, 박해수, 윤성현 감독 등 영화의 주역이 모두 함께하는 특별한 자리로 그간 밝혀지지 않았던 영화에 대한 모든 것을 풀어놓는다. 넷플릭스 공개 후 당일 진행되는 만큼 영화에 대한 깊이 있는 이야기부

터 비하인드 스토리까지 영화를 기다려온 모두가 궁금해했던 다양한 이야기를 가감 없이 전할 예정이다.

‘사냥의 시간’의 주역들을 한자리에 만날 수 있는 스페셜 온라인 GV는 오는 23일 오후 9시 넷플릭스 코리아 유튜브 채널과 네이버 V라이브 채널을 통해서도 생중계된다.

한편 ‘사냥의 시간’은 오는 23일 넷플릭스에서 전 세계 단독 공개된다.